

어릴 적부터 나는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안일을 한다” 는 말을 당연하게 들으며 자랐다. 우리 집도 결혼 초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와 신랑은 맞벌이였지만, 나는 퇴근 후에도 저녁을 준비했고 신랑은 주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자잘한 집수리를 도맡았다. 그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다리 골절. 몇 달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시작되면서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제시했다. 쉬는 날이 늘었다는 기쁨도 잠시, 수입은 함께 줄어들었다. 반대로 내 일은 일부가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처음엔 잠깐이라 생각했다. 집에서 바쁜 나를 대신해 신랑이 요리를 시작했다.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레시피를 연구하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이는 모습에는 이상하게 빛이 났다. 어느 순간부터는 세제를 비교해 가며 소재와 색상, 쓰임새에 따라 빨래를 나누어 세탁하는 일까지 즐기는 듯 보였다. 그사이 나는 본업과 재택근무로 시작한 일이 확장되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회사가 다시 정상 근무를 시작하려던 무렵,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굳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내 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고 신랑 역시 탄력 근무가 아닌 정상 복귀를 제안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새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일상의 잡음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신랑의 음식은 날로 맛있어졌고 보송하면서도 때로는 뽀뽀하게 잘 마른빨래가 좋았으며 집안의 청결도와 삶의 질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종이에 그간의 역할을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던 어느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가장으로, 신랑은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선택했다.

물론 처음엔 주변의 시선도 있었다.

“남자가 집에 있어?”

“여자인 네가 가장이라고?”

신기해하는 눈빛과 안쓰럽게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느 부부보다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남편은 섬세했다. 계절마다 이불을 바꾸고, 영양소에 맞춰 식단을 짜고, 조리법을 바꿔가며 그날 그날 집의 기분을 먼저 알아챈다.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내가 될 수 있었다.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는 없었다. 둘 다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솔직히 예전에는 양성평등을 그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적응 중이다.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사회적 잣대에 맞추지 않았다. 힘든 날에는 서로의 자리를 대신해 주며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 마주 보고 웃을 수 있었다. 고정된 역할보다 서로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

우리 집에는 ‘여자가 가장이라서 특별한 것’도 ‘남자가 주부라서 이상한 것’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믿고 존중했을 뿐이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깨달았다. 양성평등이란 역할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별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늦게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있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미소 짓는 신랑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평온해지던 그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가장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집 식탁에는 정해진 역할 대신 서로를 향한 배려가 매일 차려지고 있다.